거북선 원형은 '연선', 제안자는 '자운 대사'

〈鳶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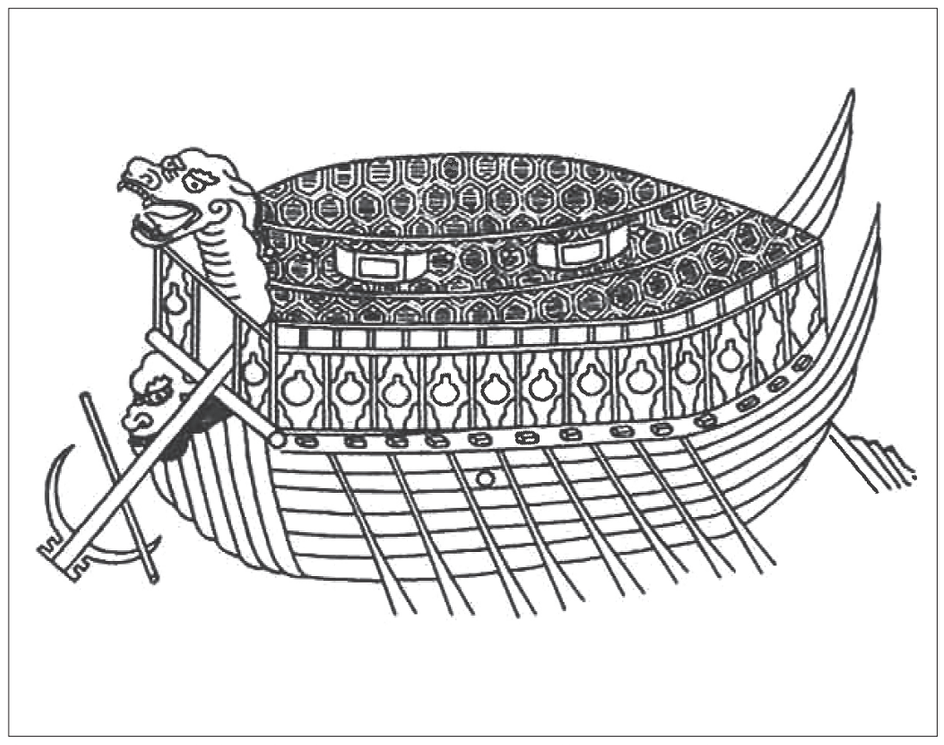


가람유사① 해인사 I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
동국대 출판문화원
2만 5천원(세트 2권)



가람유사② 화엄사 I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
동국대 출판문화원
2만 5천원(세트 2권)





화엄사 부도전에 있는 자운대사의 부도〈사진 왼쪽〉과 〈이충무공전서〉의 거북선 도안〈사진 오른쪽〉의 모습. 거북선 원형을 자운 대사가 제안했다는 설화가 화엄사에 전해진다. 이 같은 설화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발간한 〈가람유사〉 시리즈에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엄사 일주문 왼편에는 화엄사를 거쳐 갔던 고승들의 부도를 모셔놓은 부도전이 있다. 이곳에는 화엄사 출신 승려인 자운 스님의 부도가 있다. 자운 스님은 속가 4형제가 전부 출가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군으로 크게 활약했다. 자운 스님은 당시 전라좌수영에서 수군통제사를 맡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군사적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승수군을 결성한 자운 스님은 이들을 이끌고 이순신 장군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운 스님은 자문을 구하던 이순신 장군에게 거북선의 원형이 되는 '연선(鳶船)'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천축에서 한반도를 찾아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鳶起) 조사는 지리산에 찾아올 때 연(鳶)이라는 동물을 길들여 그것을 타고 왔다. 이 연이라는 거대한 동물은 거북의 몸을 하고 머리는 용과 같으며, 양 날개가 있어 하늘은 날기도 하고 바다에서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 그런 화엄사의 창건과 관련된 동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연선'이다. 연선의 머리는 용 모양을 하고 있어 불법을 수호하는 용과 같은 호법신의 상징을 지니고 있기에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승려로서 불살생의 계를 범하게 됐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승군을 조직하였고 또 연선을 고안했다. 이것이 왜군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자운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순신 장군은 크게 감동했고, 당시 도안은 이덕홍이 제작한 귀갑선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마치 전설 같은 이 이야기는 화엄사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설화다. 구비문학이나 설화, 민담을 단순히 가상의 역사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화, 민담은 당시 사회상이나 의식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가람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현대적으로 담아낸 총서 시리즈가 첫 선을 보였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가람유사① 해인사 I 〉〈가람유사② 화엄사 I 〉를 최근 발간했다.

〈가람유사(迦藍遺事)〉 시리즈는 산재돼 있는 전통사찰의 사료 및 자료들을 한데 묶고,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으로, 동국대 WISE캠퍼스 '한국불교 스토리콘텐츠 크리에이트 허브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맥을 잇고자 시작된 〈가람유사〉 시리즈는 기존 사찰 소개 책들과 달리 각 전통사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설화 · 민담 등 구비문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유사〉에서 '사(史)'가 아닌 '사(事)'라는 글자를 사용해 우리 역사에 있었던 특정 사건과 이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듯, 〈가람유사〉 시리즈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사찰의 구조 · 의식 · 역사를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람유사〉에서는 설화 · 민담에 숨어 있는 의미를 학술적 기반 위에서 재해석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합천 해인사 전경.

동국대 WISE캠 불교사회문화硏
〈가람유사〉 시리즈 처음 선보여
해인사, 화엄사서 구전된 설화들
학술적 기반 위에 재해석 '눈길'
'해인FC' 등 현대 스토리도 담아



구례 화엄사 전경.

앞서 소개한 자운 스님과 이순신 장군의 설화에서 나오는 '연선'의 '연'에 대해서 그 원형이 '연이 돌아다니는 계곡'이라는 사명을 지닌 지리산 연곡사(화엄사 말사)의 동승탑비 귀부를 주목해 설화의 신빙성을 더 했다.

나아가 책은 '연'이라는 전설의 동물을 추정한다. 인도 고대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온 하늘을 나는 기구인 '비마나'로 추정하며 도안을 그린 19세기 문헌의 〈비마니카샤스트라〉에 수록된 '샤쿠나비마나' 도안이 가장 연과 유사함을 밝힌다. 그리고 일본 닌텐도사가 제작한 게임 '슈퍼마리오'의 악당 대마왕 쿠파가 거북선과 외형이 닮았음을 주목하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더불어 일본인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거북선에 대한 공포가 일본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잠재돼 쿠파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람유사〉는 오래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대의 사찰 비사들도 친근하게 풀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설의 FC해인'이다. 해인사 축구단은 1925년 통도사 스님들과의 시합을 위해 탄생했으며, 스님들의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해인사 스님들에게 체력 증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화재 진압을 위해서다. 가야산 산중에 있는 해인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장 불을 꺼야 하는 소방관은 스님들이기 때문이다.

축구에 진심인 해인사 스님들은 1965년 직접 풀을 뽑고 땅을 평탄화해 운동장을 만들었고,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치르는 화합의 장이 됐다.

이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사찰이라는 공간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텍스트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석길암 불교사회문화원장(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은 "〈가람유사〉는 〈삼국유사〉 이후 점차 소멸돼 가는 불교와 지역 스토리를 보전하고 현대적으로 알기 쉽게 재형상화하는 작업"이라면서 "향후 〈가람유사〉의 작업이 영화, 웹툰, 방송, 출판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이어져 한국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간행사에서 〈가람유사〉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불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불교에 대한 서원이 담겼음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가람유사〉는 남겨야할 가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남겨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자되고 재생산돼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교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우리 삶을 불교 이야기에 되비춰 보는 선순환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람유사〉 시리즈는 〈은해사 1편〉 · 〈동화사 1편〉 · 〈화엄사 2편〉 등 3편을 올해 안으로 출판되며, 향후 국내 전통사찰들에 스며있는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한국불교 스토리 콘텐츠 크리에이트 허브사업단은 〈가람유사〉 시리즈 병행사업으로 불교 의례, 큰 스님들이 전하는 불교 역사, 설화 등을 5월 중 유튜브를 통해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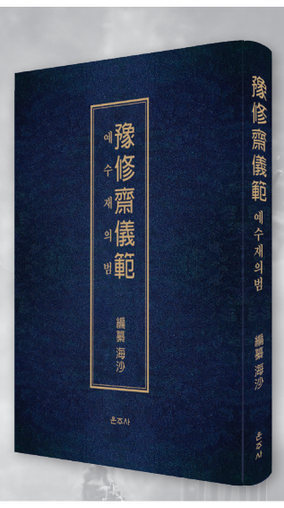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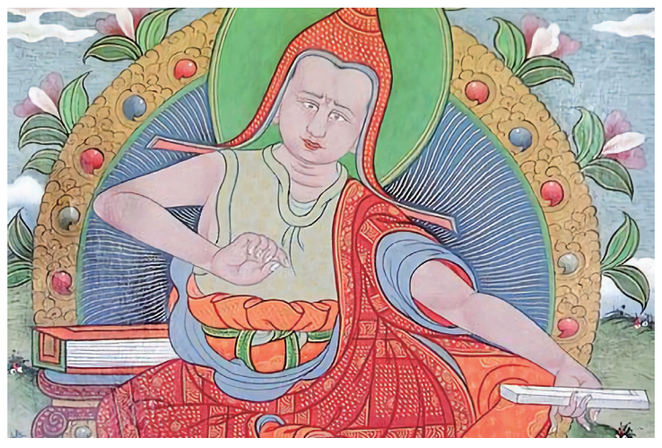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